

여유의 리더십



김진형 전무
(주)카길애그리퓨리나

“성실에는 지나침이란 있을 수 없다. 단,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일을 해야 자유로워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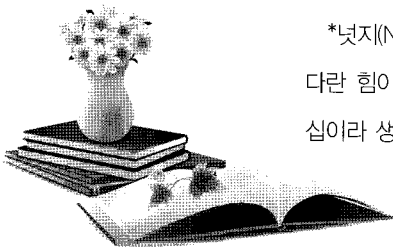
- 마르셀 프루스트

나는 개인적으로 신분의 차이는 ‘여유’에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상황에서든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아니하고 위트와 미소를 잃지 않을 수 있다면 신의 반열에 오를 만한 왕족일 것이다.

요즘 정치학에서는 ‘소프트 파워’라는 이름으로, 경영학에서는 ‘넛지’(nudge)*라는 이름으로 온유함에 기반을 두고 목표를 점진적으로 이루어나가는 리더십이 단기의 목표를 성취하는 듯해 보이나 많은 부작용이 따르는 강경적 리더십에 대한 대안적 리더십으로 화두가 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모태라고 하는 영국 같은 경우 국회에서의 의사결정 과정과 정책구현 과정을 보면 무엇보다도 ‘인내’가 가장 필요할 정도로 ‘세월아 세월아’ 토론과 합의의 과정을 수없이 반복한다. 그러나 그렇게 우회하며 더디 가는 것 같아 보이는 그들을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선진(先進)한 국가라고 칭찬한다.

*넛지(Nudge)효과란? 옆구리를 슬쩍 찌르다 - 자그마한 자극만으로 변화할 수 있는 커다란 힘이라고 한다. 동기강압이 아닌 동기부여는 여유 있는 자만이 구사할 수 있는 리더십이라 생각한다.



주변에서 탁월하게 똑똑한 사람들이 종횡무진 ‘폭풍 성

장'을 하다가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쯤은 겪게 되는 '극한의 상황'에 처할 때 '여유의 부재'로 허무하게 추락을 자초한 경우의 담화들을 우리는 하나, 두 개씩은 다 알고 있다.

송길원 목사님의 글에서도 이 같은 '선(先)여유, 후(後)열매'의 리더십이 잘 나와있다.

나와 아내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일례로, 나는 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다. 그런 나와 달리 아내는 떠나야 할 시간에 화장한다고 정신이 없다. 다가가서 보면 침으로 가판이다. 화장품 뚜껑이라는 뚜껑은 다 열어 놓고 있다. 나는 그게 안 참아진다. 나도 모르게 버럭 화를 낸다. 거기다 나는 약속시간에 늦은 적이 거의 없다. 고로, 난 항상 아내를 다그치고 몰아세웠는데 어느 날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

“잘하는 네가 해라. 안되니까 붙여 놓은 것이 아니냐?”

너무 큰 충격이었다. 생각의 전환이었다. 이 말은 내가 내 아내보다 정리정돈에 탁월한 재주가 있다는 증거이다.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상대방의 마음을 박박 긁어 놓고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무기로 사용하는데 있지 않다. 은사는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선물이다. 바로 그 때 내가 알게 된 사실이 있다. 내 아내한테는 뚜껑 여는 은사가 있고 나에게서는 뚜껑 닫는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아내를 대하는 내 태도가 바뀌었다.

아내가 화장한다고 앉아 있으면 내가 다가가 물었다.

“어보, 이거 다 썼어? 그러면 뚜껑 닫아도 되지? 이거는? 그래, 그럼 이것도 닫는다.”

이제는 내가 뚜껑을 다 닫아 준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야단을 칠 때는 전혀 꿈쩍도 않던 내 아내가 서서히 변해 가는 것이다. 잘 닫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세게 잠갔던지 이제는 날더러 뚜껑 좀 열어달라고 한다.”

위 글에 '소프트 파워', '넛지', '섬김의 리더십' 등이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여유의 리더십'이 묻어있다. 결국 장기지속 가능한 성공에 있어선 추진력만큼 '여유'가 점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때론 기다릴 줄 아는 여유,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해질 줄도 아는 여유, 바닥에서도 다시 정상을 꿈꿀 수 있는 여유, 다름 속에서도 같음을 찾아내고, 다름에 동요되지 않더라도 다름과 화합할 수 있는 여유, 받기 전에 먼저 베풀 수 있는 여유, 아비가 자식을 사랑함 같이 남에 대해서도 기다려주고 지켜봐 주고 끝까지 믿어주는 여유. 이런 여유는 결국 우리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이와 같은 '여유의 리더십'의 대가인 민족은 우리 한국민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고속의 산업화, 민주화를 포함한 '한강의 기적'을 일구면서 우리의 여유로운 체질이 조금 무뎠던 듯 보일 수도 있지만, 김남주 시인

“

스스로를 넘어 세상을 평정하는 데에 당연히 필요한 마음이 여유 넘치는 온유한 평정심이 아닐까 생각해보며, 우리 '닭조인' 들 모두 온유한 평정심, 즉 '여유의 리더십'으로 무장되어 대한민국 양계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와 전세계를 평정하는 세계적인 양계가 되길 기대한다.

”

의 “옛 마을을 지나며”와 같은 시에 우리 한 국민의 여유의 리더십이 잘 나타나 있다.

“찬서리

나무 끝을 날으는 까치를 위해
흥시 하나 남겨둘 줄 아는
조선의 마음이어.”

찬서리 내리는 한겨울에도 ‘까치 밥’까지 챙기며 우리 자신을 넘어 이웃과 자연까지도 돌아보았던 ‘조선의 마음’이 바로 ‘여유의 리더십’의 표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외국인인 한국 와서 보고 놀란다는 지하철과 버스에서 어르신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여유의 리더십’ 실천의 단면이라고 생각한다.

스스로를 넘어 세상을 평정하는 데에 당연히 필요한 마음이 여유 넘치는 온유한 평정심이 아닐까 생각해보며, 우리 '닭조인' 들 모두

온유한 평정심, 즉 '여유의 리더십'으로 무장되어 대한민국 양계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와 전세계를 평정하는 세계적인 양계가 되길 기대한다.

특히, 깊은 밤 지나고 새벽 동이 틀 때 가장 먼저 새벽을 알리는 우리의 사랑이요, 사명인 닭처럼, 근래에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한국 축산업계에 왕 같은 여유로 희망의 새벽을 알리는 선구자와 같은 우리가 되길 소망한다.

여유의 끝이 없어 보이는 선선한 한국 가을의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오늘따라 더욱 그럽다. ☘